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2024년 2/4분기 중 동남권 경제 모니터링 결과*

*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본부가 2024년 4~5월 중 모니터링한 최근 동남권 경제 동향 및 부산지역 제조업 관련 현장리포트로서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4년 6월호)에도 수록

◆ 동남권 경제 동향

- 2024년 2/4분기 중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기(생산 및 수요)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물가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 현장리포트: 최근 부산지역 건설업 상황 점검

- 부산지역 건설경기는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였지만 크게 둔화되지는 않은 반면,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은 악화되는 모습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붙 임: 1. 동남권 경제 동향
2. 현장리포트: 최근 부산지역 건설업 상황 점검

문의처: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김하영

Tel: 051-240-3852 Fax: 051-240-3859 E-mail: bokbusan@bok.or.kr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보도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의 ‘지역본부-부산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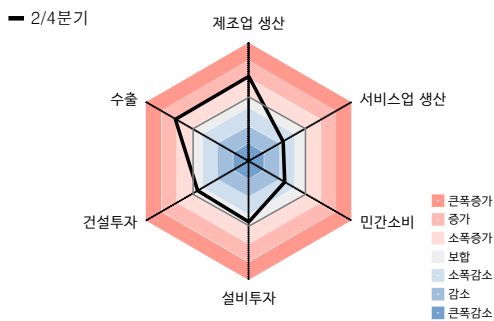
<붙임1>

요약

[경기 개황]

- 2024년 2/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감소
 -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수출은 증가

경기 레이다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생산]

- (제조업: 증가)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석유화학, 기계장비가 증가한 반면, 석유정제는 감소하였으며 철강 및 금속가공은 전분기와 보합
- (서비스업: 소폭 감소) 운수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업도 소폭 감소

[수요]

- (민간소비: 소폭 감소)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 모두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
- (설비투자: 보합) 자동차와 기계장비가 소폭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철강·비철금속 및 석유정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
- (건설투자: 보합) 민간부문은 제조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로 소폭 감소
- (수출: 증가) 선박, 석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철강금속제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

[고용]

- (취업자수: 감소 전환) 4~5월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수는 전분기대비 감소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공업제품 가격이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였으나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 오름폭이 줄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도 다소 완화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

동남권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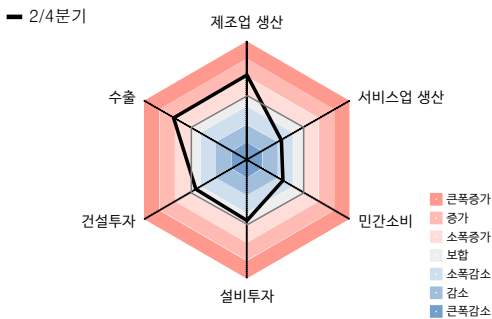
(1) 개황

동남권 경기 보합

2024년 2/4분기 중 동남권 경기는 전분기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이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소폭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과 건설투자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수출은 증가하였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1/4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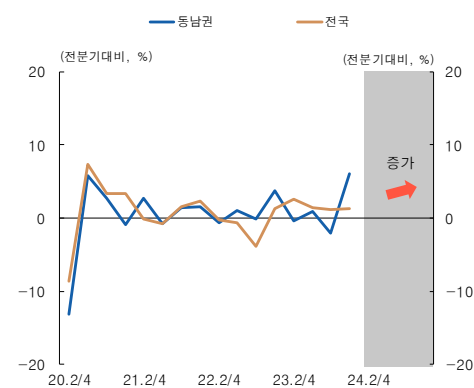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산

제조업 생산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석유화학, 기계장비가 증가하였고 석유정제는 감소하였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동차 및 부품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라인 조정¹⁾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으로의 친환경차 및 SUV 수출 확대²⁾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하였다. 조선은 기존의 수주잔량³⁾을 토대로 고부가 선박 등의 건조가 이어지면서 전분기보다 생산이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이구환신(以舊換新)⁴⁾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기계장비도 대미 수출 호조, 방산부문 설비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1)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4.28~5.13일 약 2주간 신형 팰리세이드 생산 준비를 위한 라인 공사를 진행하였다.
2) 4월 중 현대차, 한국GM 르노코리아의 완성차 생산량은 각각 17.9만대, 4.9만대, 1.1만대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19.8%, 19.9%, 72.8% 증가하였으며 수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각각 22.0%, 15.1%, 153.9%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3) 6월 초 현재 수주잔량은 3,849만CGT로 2017~19년 월평균 수주잔량(2,005만CGT) 대비 1.9배 많은 수준이다.(Clarksons)
4)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생산활동과 내수진작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바꾸거나 제조설비 등을 녹색 저탄소, 스마트화로 전환할 때 보조금과 투자세액환급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반면, 석유정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난방유 수요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철강 및 금속가공은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전방산업 호조에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신규수주 감소⁵⁾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보된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당분간 현재의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인력 수급난⁶⁾은 지속적으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에도 견조한 수출 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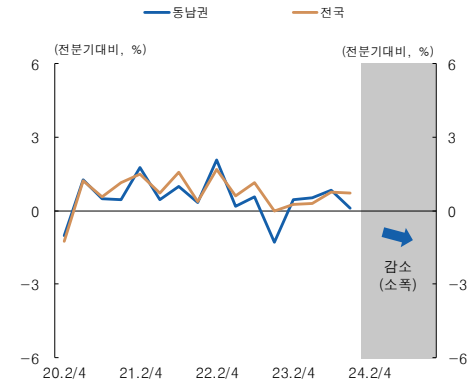
기계장비는 방산 및 원전부문 호조,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철강 및 금속가공은 국내기업들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 철강가격 하락압력 지속 등으로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이 증가하였으나 부동산업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도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⁰⁾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업은 수출입 물량 확대로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⁷⁾ 및 육상화물 운송이 늘어나면서⁸⁾ 증가하였다. 반면 부동산업은 주택거래가 전분기보다 둔화되면서⁹⁾ 소폭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내국인의 지역 방문이 줄면서¹⁰⁾ 전분기보다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은 재화 소비가 부진을 이어가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¹¹⁾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은 글로벌 교역량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에 따라 부산항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이번 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숙박·음식점업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내국인 방문객 회복이 지연되면서 이번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부동산업은 최근 미분양 주택¹²⁾이 늘어나

5) 4~5월 동남권 조선업체의 신규 수주량은 월평균 44.8만CGT로 1/4분기(월평균 117.0만CGT)에 비해 61.7% 감소하였다.(Clarksons)
 6) 조선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7) 4월 중 수출입이 1/4분기(월평균) 대비 4.9% 늘어나며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9% 증가하였다.(부산항만공사)
 8) 4~5월 중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한 대형화물차(4, 5종) 수는 1/4분기(월평균) 대비 7.9% 증가하였다.(한국도로공사)
 9) 4월 중 동남권 주택거래량은 11,877호로 1/4분기(월평균) 대비 4.6% 감소하였다.(한국부동산원)
 10) 4월 중 동남권 방문객 수는 부산(-17.2%), 울산(-12.1%), 경남(-8.6%)에서 모두 줄어 1/4분기(월평균) 대비 12.8% 감소하였다.(한국관광공사)
 11) 4월 중 동남권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불변)가 1/4분기(월평균) 대비 12.3% 감소함에 따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도 6.5% 감소하였다.(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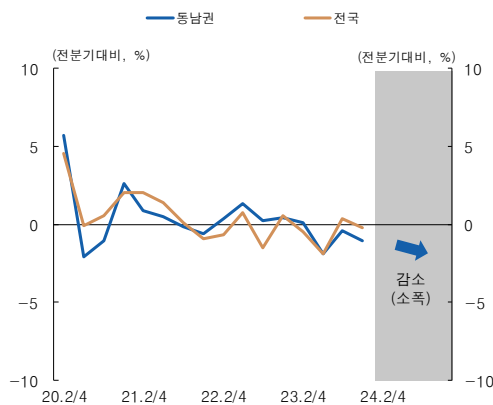
는 등 주택시장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도소매업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가계소비가 둔화¹³⁾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와 재화 소비 모두 전분기보다 줄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내구재는 고금리 영향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¹⁴⁾ 감소하였으며, 준내구재도 레저용품 및 문화취미¹⁵⁾ 관련 지출이 줄며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

함에 따라 음식료품 지출이 줄면서¹⁶⁾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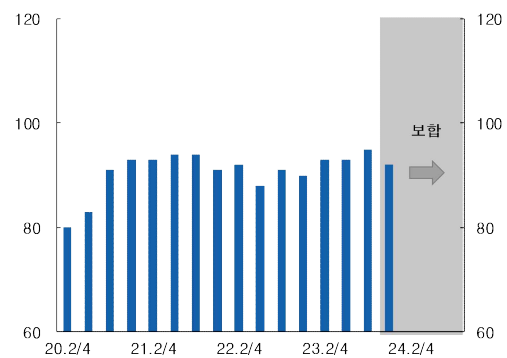
서비스 소비는 여행 관련 지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의료 관련 지출도 줄면서¹⁷⁾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소비심리 개선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포함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포함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와 기계장비는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철강·비철금속 및 석유정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 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 12) 4월 중 동남권 주택 미분양 물량은 1/4분기(월평균) 대비 28.3%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 13) 4~5월 평균 소비지출전망지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08.5로 1/4분기(월평균) 대비 소폭 상승(+0.8p)하였으나, 울산(-1.5p, 107.0 → 105.5)과 경남(-4.7p, 112.7 → 108.0)은 하락하였다.(한국은행)
- 14) 4~5월 중 동남권의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22,930대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였다.
- 15) 4월 중 동남권의 준내구재 중 레저용품 카드사용액(농협신한하나카드, 자체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1/4분기(월평균) 대비 10.2% 감소하였으며 문화취미도 4.1% 감소하였다.
- 16) 4~5월 중 동남권의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0.0% 상승하였으며, 4월 중 동남권 음식료품 카드사용액은 1/4분기(월평균) 대비 6.4% 감소하였다.
- 17) 4월 중 동남권의 숙박(-13.5%), 레저업(-1.9%) 등의 카드사용액이 모두 1/4분기(월평균) 대비 감소하였으며, 의료기관 카드사용액(전분기 월평균 대비)도 23.4/4분기 4.5% → 24.1/4분기 1.1% → 4월 -4.9%를 기록하여 감소로 전환된 모습이다.

기계장비¹⁸⁾는 항공부문 생산설비 증설, 자동차¹⁹⁾는 신모델 개발에 따른 생산라인 변경 등으로 설비 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²⁰⁾은 일부 신사업 관련 공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편, 철강·비철금속은 건설업 등 전방산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난 분기의 부진이 이어졌다. 석유정제²¹⁾는 신규 설비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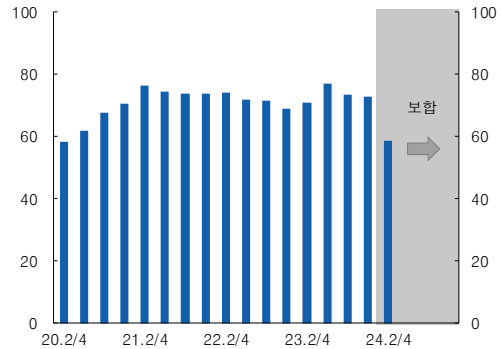
조선²²⁾의 경우 양호한 수주를 바탕으로 신규 설비 투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²³⁾, 전기장비²⁴⁾ 및 기계장비²⁵⁾도 신사업 관련 투자가 지속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석유정제·석유화학의 경우 중동리스크 및 경기 불확실성 등 제약요인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금분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포함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 주택 누증²⁶⁾ 등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거용 건물 건설이 감소하였으나 제조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²⁷⁾이 늘어나면서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

였다. 반면,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²⁸⁾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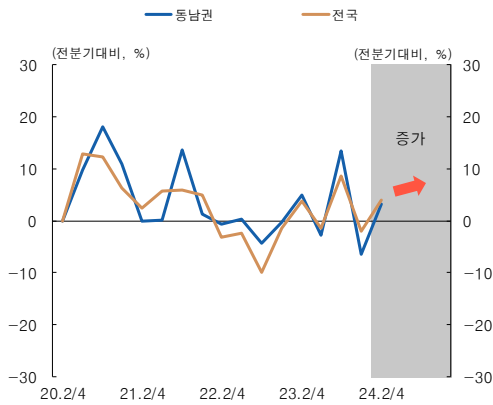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미분양주택 증가 및 고금리 지속 등으로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액 감소²⁹⁾ 등을 감안하면 금분기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90억원 규모의 항공엔진공장 증설공사를 착공(4월)하였다.
 19) 르노코리아는 첨단하이브리드 모델(오라1) 생산을 위해 부산공장 생산설비 개조공사(6~7월)를 진행할 예정이다.
 20)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은 2.8천억원 규모의 NB-리텍스 설비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5월 어프리티움은 1.2천억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액화 및 저장 공장을 준공하였다.
 21) S-OIL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 구축을 위한 9.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사한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다.
 22) 한화오션(舊대우조선해양)은 방산 및 친환경 연료기술 개발과 해상풍력발전 설비 마련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23) 현대차는 전기차 진단 및 관리를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울산하이테크센터를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며,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신모델 생산을 위한 1.2천억 규모의 설비교체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4) 삼성 SDI는 상반기 중 울산 공장 내에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시설 건설 및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3공구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25) 한화오션은 2024년 중 3.8천억원 규모의 최적 생산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3월까지 612억원 규모의 항공선박용 배터리 셀 제조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26) 4월 말 동남권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3,058호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16.9%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7) 4월 중 동남권의 전체 착공면적은 83만m2로 전분기(월평균)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공업용이 85.9% 증가한 반면 주거용, 상업용은 각각 23.2%, 3.9%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2.3% 증가, 공공은 18.3%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28) 2024년 4~5월 중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 집행 규모(월평균)는 5,127억원으로 전분기(8,785억원) 대비 41.6% 감소하였다.(지방재정 365)
 29) 4월 중 동남권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은 2,197억원으로 전분기(월평균) 2,718억원에 비해 19.2%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수출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증가³⁰⁾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 석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철강금속제품, 기계(수송기계 제외),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일평균)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일평균 수출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박은 그간 수주물량의 인도가 상당부분 진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³¹⁾하였다.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 난방유 수요감소 등으로 감소 전환³²⁾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부품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SUV,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

한 북미지역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³³⁾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은 지난 분기 주춤하였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상당 부분 회복되며 증가³⁴⁾하였다. 기계는 주요 수요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면서³⁵⁾, 석유화학제품은 친환경 소재 등에 대한 중국 등의 수요 확대³⁶⁾로 각각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계 및 석유화학제품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성장세,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부품은 SUV 및 친환경 차량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부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은 글로벌 수요회복 등 경기요인과 지정학적 리스크 및 비OPEC+ 원유 증산 등 가격변동 요인³⁷⁾이 혼재하면서 2/4분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선박은 2021년 수주물량의 상당 부분이 기인도³⁸⁾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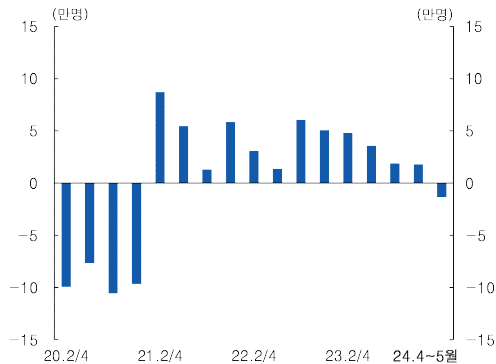
30) 4~5월 중 동남권의 일평균 수출액(5.6억달러)은 전분기(5.5억달러)대비 3.2%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31) 최근 선박수출(MPI 7461, 억달러)은 2023년 4/4분기 0.91 → 2024년 1/4분기 0.66 → 2024년 4~5월 0.58로 감소세를 보이거나, 2021-2022년 평균 수출액(0.50)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32) 4~5월 중 두바이유(86.6달러/bbl)가 전분기(81.6달러/bbl)대비 6.1% 상승한 가운데 동남권 석유제품(MPI 133) 수출중량은 전분기대비 6.4% 감소하였다.
 33) 4~5월 중 동남권 자동차 및 부품(MPI 741, 742) 수출액은 전분기대비 4.2% 증가(자동차 +46.8%, 자동차부품 -34.3%)하였으며, 자동차부품은 전기차 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34) 4~5월 중 동남권 철강금속제품(MPI 6) 수출은 중국(16.6%)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12.5% 증가하였다.
 35) 4~5월 중 동남권 기계(수송기계 제외) 수출액은 기타기계류(MPI 79)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미국 수출은 전분기대비 8.8% 증가하였다.
 36) 4~5월 동남권 석유화학제품(MPI 21) 수출은 중국(27.2%) 및 미국(55.4%)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5.0% 증가하였다.
 37)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bbl, 일평균)는 2024년 3월 84.7 → 2024년 4월 89.4 → 2024년 5월 83.7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38) 2021년 중 동남권에 조선소가 위치한 국내 대형 조선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선박수주물량(CGT 기준)은 2017-2020년 평균 수주물량의 2.5배 수준으로 2024년 5월말 기준 동 물량의 약 57.1%가 기인도되었으며 3/4분기 중에는 11.1%가 인도될 예정이다.(Clarksons)

(4) 고용

취업자수 감소 전환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2만명 감소하여 2021년 2/4분기 이후 3년만에 감소 전환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농림어업 및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4.0만명 → -5.0만명) 등 비임금근로자 감소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되었고, 임시근로자(+3.4만명 → +1.4만명)와 상용근로자(+6.2만명 → +4.5만명) 등 임금근로자 증가폭도 축소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의 취업자수는 증가 전환한 반면, 부산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남은 감소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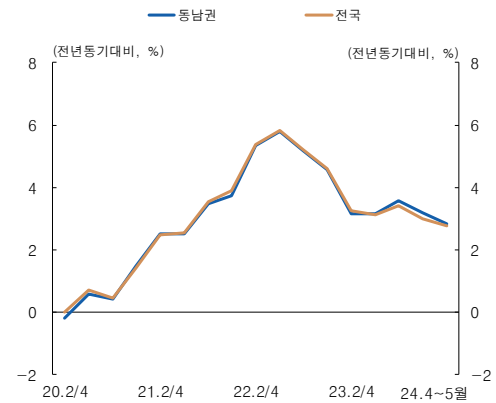
취업자수 증감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였으나,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가격(2.8% → 2.2%) 오름폭이 줄고 농축수산물 가격(10.8% → 10.0%) 상승세도 다소 완화된 데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4~5월 중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전분기말월대비 0.13% 및 0.04% 하락하면서 1/4분기 (-0.17%, -0.07%)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울산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고 전세가격도 상승하였으나, 경남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매매 및 전세 수급지수도 4~5월 중 86.2와 91.5로 전분기(85.0, 89.6)보다 높아져 매도우위 흐름이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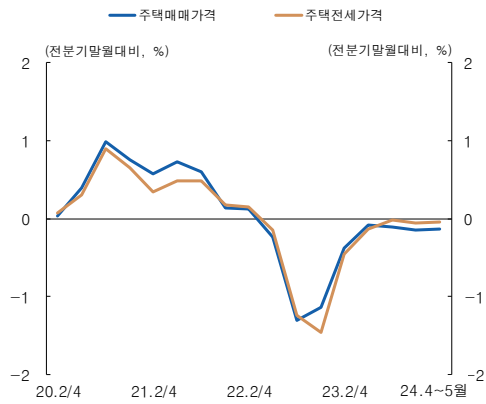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8%로 전분기(3.2%)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공업제품 가격(-5.2% → 2.1%)이 석유류³⁹⁾

39)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1/4분기 중 2.5%에서 4~5월 중 9.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말 기준. 단, 표본재실계 이전인 2021.6월까지의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블임2>

현장리포트

최근 부산지역 건설업 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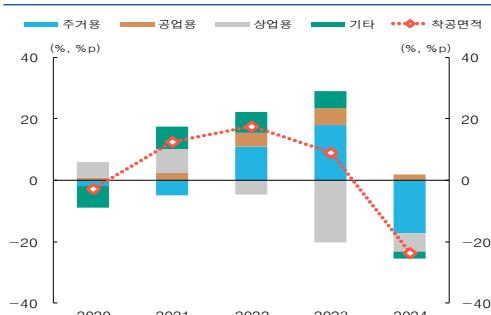
부산본부 문수성 과장, 김지원 조사역

최근 부산지역 일부 건설사들에 대한 부도처리¹⁾로 지역의 건설경기와 건설업체 경영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지역내 건설경기를 살펴보면 최근 건축착공면적이 감소하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크게 둔화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부산지역의 2024년 1~4월 중 착공면적은 전년대비 23.7%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2022년~2023년 중 착공면적 확대를 주도하였던 주거용 건물(-34.1%)이 올해 들어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기업들의 신규투자 감소로 상업용 건물(-29.9%) 착공도 줄어들었다.

부산지역 건축착공면적 증감률 및 부문별 기여도¹⁾²⁾



주: 1) 각 연도별 월평균 착공면적 기준
2) 2024년은 1~4월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최근의 건축착공이 크게 저조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지역 건축 착공면적은 2019년 저점을 형성한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는데 2024년 1~4월 중 일부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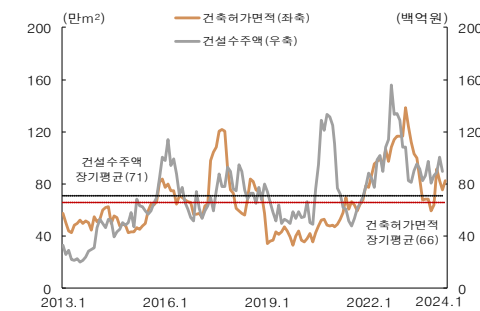
부산지역 건축착공면적 추이¹⁾²⁾³⁾



주: 1) 6개월 이동평균(MA) 기준
2) 장기평균 대상기간은 2013년 1월~2023년 12월
자료: 국토교통부

앞으로도 지역내 건설경기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과 건설수주액 추이를 고려할 때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면적은 2024년 1월 반등 이후 과거 평균(2013년~2023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건설수주액도 2022년 3/4분기 최고점 이후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과거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³⁾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행지표들은 4~7분기 시차를 두고 실제 건설투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건설경기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산지역 건축허가면적, 건설수주액 추이¹⁾²⁾



주: 1) 6개월 이동평균(MA) 기준
2) 장기평균 대상기간은 2013년 1월~2023년 12월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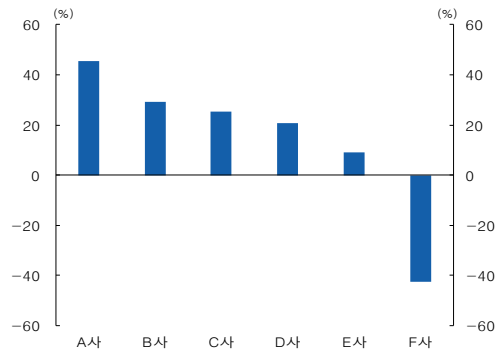
1) 2024.4월 익수종합건설(2023년 국토교통부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기준 부산 29위, 전국 344위), 5월 남흥건설(부산 25위, 전국 307위)이 각각 부도처리되었다.
2) 부산지역 건설업 기업들의 매출액도 2021년 1.3%, 2022년 5.0% 각각 증가하였다.(전년대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3) 2024년 1~4월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7.4%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2.2% 증가하였다.

하지만 건설투자 진척상황과는 별개로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⁴⁾되고 미분양주택이 크게 늘어나는⁵⁾ 상황에서 업체들의 공사대금 수령이 지연되는 등 자금흐름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요 건설사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⁶⁾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2023년 말 기준 공사미수금이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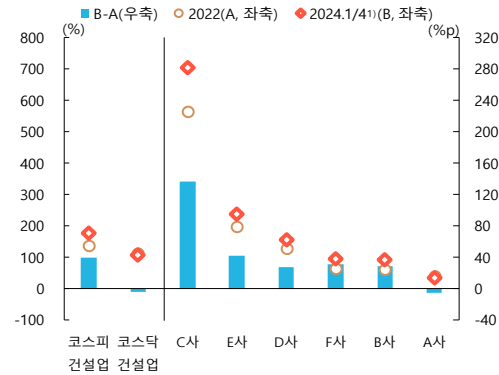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부채 비율도 지속 확대되고 연체율도 비은행을 중심으로 상승⁷⁾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특성상⁸⁾ 업계에서 체감하는 자금사정은 이보다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주요 건설사 공사미수금 증가율¹⁰⁾



주: 1)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금 합계
 2) 2022년 대비 증가율 기준(A, B, C사는 2024.1/4분기말 기준, D, E, F사는 2023년말 기준)
 자료: 각 사 재무제표

부산지역 주요 건설사 부채비율 변화



주: 1) A, B, C사는 2024.1/4분기말 기준, D, E, F사는 2023년말 기준
 자료: Value Search, 각 사 재무제표

이러한 가운데 지역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분쟁이 확대⁹⁾되고 있어 향후 업체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비와 같이 부산지역 건설업은 건설경기 측면에서는 크게 부진한 상황이 아니나 업체들의 자금사정은 미분양 증가와 맞물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역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가 지역 전체 금융상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지자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 부산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3/4분기(-0.9%, 전기말월대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4.1/4분기(-0.8%)까지 7분기 동안 연속 하락을 기록(기간중 누적 하락폭 -11.2%)하였다.(한국부동산원)
 5) 부산지역 미분양 주택 수는 2024.1/4분기말 기준 3,222호로 2022.2/4분기말(1,267호) 대비 154.3% 증가하였으며, 준공후 미분양주택도 34.8%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6)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체 중 2023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위 이내에 위치한 6개 업체를 살펴보았다.
 7) 부산지역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 모두 포함)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66%에서 2023년말 1.79%로 1.13%p 상승하였는데, 특히 비은행 연체율이 2.37%에서 4.34%로 1.97%p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부산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 상승폭은 전국(+0.74%p, 2021년말 0.86% → 2023년말 1.60%)을 상회하였다.(NICE 평가정보)
 8) 2020년 기준 부산지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건설업체들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55.2명) 및 매출액(122억원)은 모두 부산을 제외한 여타 지역 평균(59.2명, 284억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경제총조사)
 9) 부산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중 9개소에서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별첨 >

동남권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생산 ¹⁾	-0.4	-0.2	-0.8	1.1 ^P	13.4	-5.9	-2.9 ^P	5.3 ^P	..
서비스업 생산 ²⁾	0.3	0.2	-0.3	0.1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6	74	73	70	69	70	70	71	71
컨테이너 처리량	4.3	5.5	8.3	6.0	8.3	7.0	3.0	0.8	..
소매판매액지수 ²⁾	2.3	-1.1	-1.7	-3.4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1.6	0.7	1.9	-0.7 ^P	-9.3	7.8	1.0 ^P	-10.3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0	93	93	95	98	96	92	91	93
건설업 업황BSI ³⁾	66	63	58	50	50	48	53	63	54
수출 ⁴⁾	-1.8	-3.4	11.3	7.3	18.6	-3.7	8.5	3.4	11.4
취업자수 증가 ⁵⁾⁶⁾	4.8	3.6	1.9	1.8	1.4	5.2	-1.2	-1.3	-1.0
(비농림어업)	(5.9)	(5.2)	(3.2)	(3.2)	(2.5)	(6.0)	(1.1)	(0.5)	(0.7)
고용률 ⁶⁾	60.4	60.2	59.8	59.2	58.5	59.3	59.8	60.1	60.5
소비자물가	3.2	3.2	3.6	3.2	2.9	3.4	3.3	3.0	2.6
주택매매가격 ⁷⁾	-1.1	-0.2	-0.3	-0.5	-0.2	-0.2	-0.2	-0.1	-0.1
주택전세가격 ⁷⁾	-1.4	-0.4	-0.1	-0.2	-0.1	-0.1	-0.1	-0.1	0.0
기업자금사정BSI ³⁾	71	77	73	73	71	72	74	75	73

주: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부산

(전년동기대비, %)

	2023			202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생산 ¹⁾	-3.0	-11.9	-10.1	-3.2 ^P	4.9	-8.0	-5.6 ^P	-0.4 ^P	..
서비스업 생산 ²⁾	0.5	0.3	-0.8	1.0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6	74	73	70	67	60	65	62	69
컨테이너 처리량	4.3	5.4	8.3	5.9	8.3	6.8	3.1	0.9	..
소매판매액지수 ²⁾	2.4	1.0	2.5	-2.6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3	0.2	2.3	0.0 ^P	-6.5	5.6	1.7 ^P	-10.2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7	97	96	96	97	94	98	98	94
건설업 업황BSI ³⁾	70	64	58	51	56	42	55	59	57
수출 ⁴⁾	-5.2	-9.7	-5.0	-6.9	-10.2	0.0	-9.9	-3.0	-9.4
취업자수 증가 ⁵⁾⁶⁾	1.6	0.9	-0.8	-0.4	-2.3	2.1	-1.1	-0.7	-1.4
(비농림어업)	(1.3)	(0.3)	(-1.0)	(-0.2)	(-2.1)	(2.2)	(-0.8)	(-0.3)	(-1.0)
고용률 ⁶⁾	57.9	58.2	57.5	57.3	56.5	57.6	57.7	57.8	57.7
소비자물가	3.4	3.3	3.7	3.3	3.0	3.5	3.4	3.2	2.7
주택매매가격 ⁷⁾	-1.4	-0.5	-0.6	-0.8	-0.2	-0.3	-0.2	-0.2	-0.1
주택전세가격 ⁷⁾	-1.6	-0.6	-0.3	-0.3	-0.1	-0.2	0.0	0.0	0.0
기업자금사정BSI ³⁾	78	80	78	75	75	74	77	78	76

주: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